

‘균형감각, 조선왕실의 문화’

내달 6일까지 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2관에서 특별 기획전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 속 마음의 여유를 시민들에게 선물하고자 아주 특별한 기획전을 준비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가 주최·주관해 열리는 이번 특별 기획전은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2관에서 ‘균형감각, 조선왕실의 문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시작품들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과 작가들이 참여해 준비했으며, 조선왕실의 문화, 철학, 풍류, 일상을 ‘균형감각’이라는 단어로 재해석하고 표현해 소재에 따라 ▲왕의휴식: 을아지잡 ▲왕의 의복: 의금상경 ▲왕의공간으로 구분 연출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특히 ‘왕의휴식:을아지잡’은 왕이 잠들기 전에 휴식을 취하며 책을 읽던 시간으로 왕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로 현대인들의 취미 전 필요한 물건을 제안해 전통과 현대 생활에 어떻게 스며들어 사용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전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과 작가들이 개발한 상품도 판매하고 있어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좋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어서 매우 반갑다”며 “작가들의 참신하면서도 독특한 생각을 공예품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주최·주관해 열리는 특별 기획전이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2관에서 ‘균형감각, 조선왕실의 문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사진은 왕의 공간 흑청(黑靑) 다기세트 모습)

확인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시 2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예문화산업팀(063-282-8886)에 문의하면 된다. /양은경 기자

‘박물관·미술관 주간’ 온라인 개막

문체부, ‘박물관의 미래 - 회복과 재구성’ 주제로 오늘 개막식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박물관협회 한국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2021 박물관·미술관 주간’이 13일 온라인 개막한다.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2021 박물관·미술관 주간(박미주간)’은 ‘박물관의 미래 - 회복과 재구성’을 주제로 13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온라인 개막식을 연다. 홍보대사인 손미나 작가가 진행하는 개막식은 올해 박미주간의 주요 특징과 프로그램을 미리 살펴보는 1부와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펼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박미주간 홍보대사이자 제이티브시(JTBC) ‘그립도독들’에 출연하고 있는 김찬용 전문 해설사가 올해 주제와 프로그램별 관련 요소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을 매체예술(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거리로 나온 뮤지엄’도 최초로 공개한다.

2부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경험의 확장 & 콘텐츠의 미래’를 주제로 신기술 활용과 소통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의 움직임과 그 속에서 관람객

이 원하는 콘텐츠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한수 국립공주박물관 관장의 진행으로 안현정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전시 기획자, 장동선 소다미술관 관장, 신상철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관련 학과(고고학, 박물관학, 미술사학과) 대학생들과 온라인 사연 모임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이 함께 한다.

‘2021 박미주간’은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신기술을 접목해 치유와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집에서도 전국 박물관·미술관을 여행할 수 있는 ‘뮤지엄진’, 일상 공간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을 볼 수 있는 외벽영상 ‘거리로 나온 뮤지엄’, 기술을 활용한 박물관·미술관 문화 체험, 사회적 연대, 치유와 회복 등에 대한 ‘주제 연계 프로그램’, 전국에 숨겨진 박물관·미술관 명소를 찾아다니는 ‘뮤지엄 꼭’ 등을 만날 수 있다.

온라인 개막식을 비롯해 올해 박미주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교양총서 제2권 ‘옛글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 발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4개 세부 주제로 총 24편 글 엮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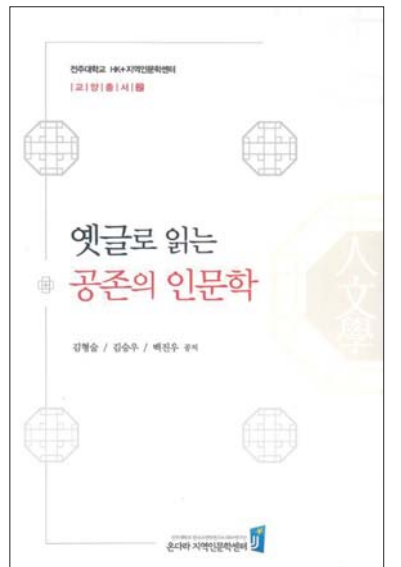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최근 교양총서 제2권인 ‘옛글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옛글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은 ‘공존’의 가치를 담고 있는 고전 산문, 한시, 고전 시가 등 고전문학 작품을 ‘일상’, ‘관계’, ‘공감’, ‘공존’이라는 네 개의 세부 주제로 나눠 총 24편의 글을 엮은 대중교양서다.

고전 산문에 백진우 교수(전주대 한국어문화과/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장), 한시에 김형술 교수(전주대 한문교육과), 고전 시가에 김승우 교수(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가 참여해 독자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일상 이야기와 연계해 작품을 해설했다.

백진우 교수는 “이 책에서 다루는 4개의 세부 주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이자 코로나19 시국에서 온전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가치이기도 하다”며, “이번 교양총서를 통해 우리 고전의 지혜를 빌려 간접적으로나마 인간 사이의 가치를 되새겨 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이 책의 내용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지난 3년 간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과 일반 대



중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군산서 주옥같은 뮤지컬 명곡 만나요”

군산시립교향악단 기획 음악회 ‘All About Musical’ 27일 공연

행복한 5월 군산시립교향악단 기획 음악회 ‘All About Musical’이 오는 27일 군산 예술회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듣는 이들에게 재미와 감동 그리고 즐거움을 선사할 이번 기획 음악회는 전파석 유료를 진행되며, 온 가족들이 좋아하는 뮤지컬 음악을 중심으로 그 화려한 마미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백정현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뮤지컬 음악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맨 오브 리만차, 레미제라블, 미스사이공, 캣츠, 레베카, 알라딘 등 주옥같은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 한국의 셀러디온이라 불리는 뮤지컬 가수 서제이와, 2021년 한국뮤지컬배우 어워즈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강필석이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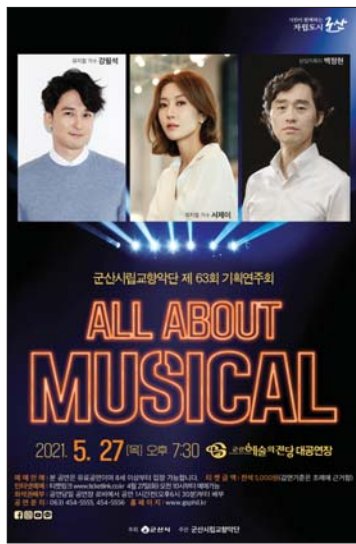
뮤지컬가수 서제이는 지난 2008년 데뷔앨

범을 발매 후 KBS불후의 명곡, 뮤지컬 뱅크, 열린음악회, 노래가 좋아 등에 출연했으며, 드라마 우아한 모녀, 위험한 약속, 여름아 부탁해, 숨바꼭질 등 OST에도 참여했다.

또한 인기물이 중인 뮤지컬 배우 겸 가수 강필석은 뮤지컬 명성황후, 번지점프를 하다, 광화문연가, 닥터 지바고 김중욱 찾기 등에 주연을 맡아 그의 능력을 인정받고 영화 마지막 간수, 다른 밤 다른 목소리, 아일랜드에도 출연하며 지난 2016년, 2021년 한국뮤지컬어워즈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군산시민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음률을 감상하고 문화를 즐기며 재미와 웃음, 감동을 체험하며 열거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남봉홍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위드앤씨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